**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**

**주요 시상 부문 심사위원 라인업 발표!**

**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가 뉴 커런츠상, 비프메세나상, 선재상, 넷팩상, 피프레시상의 심사위원 15인을 확정했다.**

**아시아 신예 감독의 발견 ‘뉴 커런츠상’ 심사위원**

**알렉산드레 코베리제, 오승욱, 제시카 키앙**

  

[왼쪽부터 알렉산드레 코베리제, 오승욱, 제시카 키앙]

아시아 신예 감독의 등용문인 뉴 커런츠상은 경쟁과 비전에 상영되는 신인감독의 데뷔작 중 한 편을 선정해 2천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. 심사위원으로는 <그 여름은 다시 오지 않으리>(2017), <하늘을 바라본다, 바람이 분다>(2021), <마른 잎>(2025) 등으로 국제영화제에서 주목받아온 조지아 출신의 **알렉산드레 코베리제** 감독, <무뢰한>(2015)과 <리볼버>(2024) 등에서 한국형 하드보일드 느와르의 정수를 보여준 **오승욱** 감독과 버라이어티·뉴욕타임스 등에 글을 기고하며 베를린, 선댄스, 칸 비평가주간, 도쿄 등의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과 프로그래머로 활약한 평론가 **제시카 키앙**이 위촉되었다.

**장편 다큐멘터리 경쟁 ‘비프메세나상’ 심사위원**

**김미례, 바실 치오코스, 이토 시오리**

 



[왼쪽부터 김미례, 바실 치오코스, 이토 시오리]

비프메세나상은 와이드 앵글 경쟁부문에 초청된 한국·아시아 장편 다큐멘터리 중 최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1천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. 심사에는 <외박>(2009), <산다>(2013) 등 여성 노동 현장을 다룬 독립 다큐멘터리를 통해 연대의 가치를 꾸준히 탐구해온 **김미례** 감독, 선댄스영화제 다큐멘터리 부문 시니어 프로그래머 **바실 치오코스**, 그리고 다큐멘터리 <블랙 박스 다이어리>(2024)를 통해 성폭력, 인권 문제를 고발하며 국제적 주목을 받은 일본의 영화감독이자 언론인 **이토 시오리**가 참여한다.

**와이드 앵글 한국·아시아 단편영화 경쟁 ‘선재상’ 심사위원**

**랏차품 분반차촉, 리홍치, 변영주**

  

[왼쪽부터 랏차품 분반차촉, 리홍치, 변영주]

선재상은 와이드 앵글 경쟁부문의 한국·아시아 단편영화를 대상으로, 최우수작 2편에 각 1천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. 선재상의 심사위원으로는 장편 데뷔작 <쓸모 있는 귀신>(2025)으로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대상을 수상하며 주목받은 태국의 젊은 시네아스트 **랏차품 분반차촉** 감독, 첫 장편 연출작으로 베니스국제영화제 미래의사자상을 받고 두번째 장편 <헛된, 춤>으로 베니스국제영화제 비평가주간에 초청받은 대만의 감각적 스토리텔러 **리홍치** 감독과 함께 <낮은 목소리 3부작>(1995~1999), <밀애>(2002), <화차>(2012) 등을 섬세하고 우아한 미장센으로 인간의 욕망을 탐색해온 **변영주** 감독이 위촉됐다.

**비전 - 아시아 ‘넷팩상’ 심사위원**

**디아나 아쉬모바, 떵리옌, 백재호**

  

[왼쪽부터 디아나 아쉬모바, 떵리옌, 백재호]

아시아영화의 흐름을 조망하는 넷팩상(NETPAC, 아시아영화진흥기구)은 비전 섹션에 선정된 아시아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된 1편의 영화에 수여되는 상이다. 넷팩상의 심사위원을 맡은 **디아나 아쉬모바**는 아시아영화진흥기구 위원이자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국제 영화 산업 전반에 걸쳐 활동하는 프로듀서 겸 영화제 프로그래머다. 그와 함께 아시아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국제영화제 현장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·심사·기획을 아우르는 영향력 있는 프로듀서 **떵리옌**, <시민 노무현>(2019)을 연출하고 <꿈의 제인>(2017), <최선의 삶>(2021)을 제작한 한국 독립영화계의 버팀목 **백재호** 한국독립협회 이사장이 선정되었다.

**비전 - 아시아 ‘피프레시상’ 심사위원**

**김미현, 나렌드라 반다베, 소피아 페레로 카레가**

  

[왼쪽부터 김미현, 나렌드라 반다베, 소피아 페레로 카레가]

비전 섹션의 아시아 작품 가운데 진취적 예술성과 탁월한 작품성을 보여준 작품에 수여하는 피프레시상(FIPRESCI, 국제영화비평가연맹)은 23년간 한국영화사와 영화·영상 정책을 연구해 온 성균관대학교 **김미현** 초빙교수, 2025 시네마포피스도브를 포함한 다수의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을 역임한 인도의 영화평론가이자 기자인 **나렌드라 반다베**와 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영화에 조예가 깊고 한국영화에도 오랜 연구를 이어온 영화평론가 **소피아 페레로 카레가**가 심사에 나선다.

주요 시상 부문 15명의 심사위원을 공개하며 개막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킨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는 9월 17일(수)부터 9월 26일(금)까지 영화의전당 일대에서 열흘간 열린다.

▶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| 9월 17일(수) - 9월 26일(금)

▶ 제20회 아시아콘텐츠&필름마켓 | 9월 20일(토) - 9월 23일(화)